

第225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會 議 錄

(2009.2.9. ~ 2.11.)

忠清北道教育委員會

第225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I. 개회식	175
II. 제22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177
III. 제22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183
IV. 부 록	
1. 의사일정안	187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9
3. 조례심사보고서	199
4. 직속기관주요업무계획보고 회의록	205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9년 2월 9일 (월요일) 11시 00분

開會式順(第225回 臨時會 開會式)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폐식

(사회:의사담당 곽종수)

(11시 00분 개식)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담당 곽종수

지금부터 제22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11시 02분 폐식)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자리에 앉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9년 2월 9일 (월) 11시 02분

議事日程 (제2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22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건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2. 제22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건(의장 제의)

(11시 02분 개의)

존경하는 곽정수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의장 곽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1월 13일자로 교육청에 부임한 부교육감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기용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간부 소개)

금년 1월 13일자 정부 인사에 따라 우리 교육청 부교육감으로 발령된 우수구 부교육감입니다.

신임 우수구 부교육감은 충북 제천시 고향으로 연세대학교에서 행정학을 전공하였으며 캐나다 원저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1979년부터 공직에 입문한 이래 경기도 정무장관실, 대통령 비서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비서실장, 강원대 사무국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쳐 광주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으로 재직하다 우리 교육청 부교육감으로 부임하였습니다.

그 동안 중앙 부처와 일선 교육현장에서 취득한 다양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 교육발전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걱정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집행기관으로부터 신강수 중등교육과장께서는 신규 교사 직무연수 강의차, 김경숙 산업정보평생과장께서는 ICT 활용교육 국외연수차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과보고

● 의장 걱정수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상황 등에 관한 보고가 있습니다.

● 의사과장 김길흠

의사과장 김길흠입니다.

임시회 소집요구와 안건접수 상황 및 도의회 처리상황, 그리고 이번 회기중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및 안건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9년 2월 2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적용되는 종전 같은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요구와 함께 충청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제22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23회 임시회에서 심의하여 집행기관으로 이송한 안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1월 23일 제277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으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부칙 제2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는 2009년도 직속기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들으시고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걱정수

의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225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11시 07분)

● 의장 걱정수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항 제225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5회 임시회 회기는 2월 9일부터 2월 11일까지 3일간으로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본회의 산회 후 조례심사소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2월 10일은 2009년도 직속기관의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며, 2월 11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제22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2월 9일부터 2월 11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끝에 실음)

3.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09분)

● 의장 걱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계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교육행정기관 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이 조정 배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중 충청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이 3,031명에서 본청 및 산하기관과 각급 학

[제225회-제1차 본회의]

교의 정원 152명이 감원된 2,879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부칙 제2조에 초과 현원에 대하여는 해소 시까지 정원을 따로 둘 수 있도록 부칙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별첨 2)

(끝에 실음)

● 의장 박정수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

(11시 11분)

● 의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를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조례심사소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는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즉시 조례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2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회의록 서명위원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2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김병우 위원님과 서수용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2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0 출석위원 : 7명

의장 곽정수, 부의장 김부웅,
위원 김병우, 서수웅, 성영웅, 이상일, 정무.

0 출석공무원 : 13명

교육감 이기용, 부교육감 우승구, 교육국장 전재원,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 황익상, 학교정책과장 정진구,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종찬, 총무과장 서재문,
기획관리과장 흥준기, 행정예산과장 윤기성, 재무과장 박노화,
시설과장 안세열.

※ 부 록

- ▶ 의사일정안(별첨 1)
-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별첨 2)
- ▶ 직속기관주요업무계획보고 회의록(별첨 4)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9년 2월 11일 (수) 11시 00분

議事日程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附議된 案件

1.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 00분 개의)

(11시 01분)

● 의장 곽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집행기관으로부터 권오삼 초등학교과장께서는 교과부 주최 전문직 과정 후보자 과정 토론회 참석차, 이종찬 체육보건급식과장께서는 동계체전 참석으로 인하여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곽정수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조례심사소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 김부웅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부웅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김부웅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9년 2월 2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월 9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였던 바, 제안설명은 심사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교육행정기관 효율화 방안 세부 시행계획에 의해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이 일괄적으로 5% 감축 조정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학령인구 감소,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경제 사회적 상황 변화, 정부 감세 정책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제22조에 의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031명에서 152명이 감축된 2,879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아울러 안 부칙 제2조에 정원 조정에 따른 초과 현원에 대하여 인위적인 퇴출이 아닌 자연감소를 위하여 초과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따로 두었습니다.

동 개정안은 행정수요에 맞는 인력조정

및 효율적 배치를 통하여 교육청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교육행정기관 효율화 방안에 따라 일괄적으로 감축 조정된 표준정원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심도있는 의안 심사와 적극적으로 소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교육위원 여러분과 집행청 관계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조례심사보고서(별첨 3)

(끝에 실음)

● 의장 걱정수

김부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안건이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

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 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 선포합니다.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
다.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차 본회의 산회 및 제225회 충청북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 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폐회)

0 출석위원 : 7명

의장 곽정수, 부의장 김부웅,
위원 김병우, 서수웅, 성영용, 이상일, 정무.

0 출석공무원 : 1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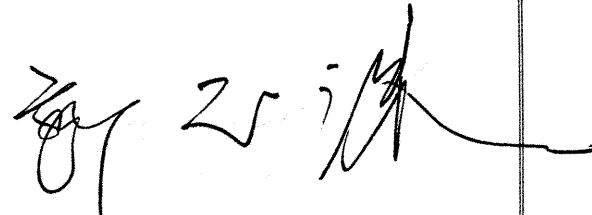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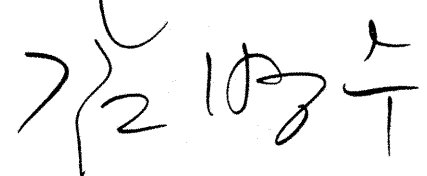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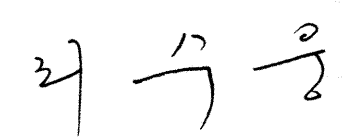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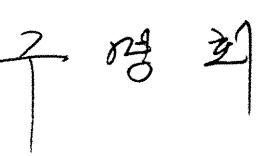
교육감 이기용, 부교육감 우승구, 교육국장 전재원,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 황익상, 학교정책과장 정진구,
중등교육과장 신강수, 산업정보평생과장 김경숙, 총무과장 서재문,
기획관리과장 홍준기, 행정예산과장 윤기성, 재무과장 박노화,
시설과장 안세열.

※ 부 록

- ▶ 조례심사보고서(별첨 3)

제22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9. 2 .

의 장	곽 정 수	
위 원	김 병 우	
위 원	서 수 웅	
의사국장	구 명 회	

(별첨 1)

의 사 일 정 (안)

제22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2009. 2. 9. ~ 2. 11.(3일간)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2월 9일(월) 11:00 본회의 종료 후	<input type="checkbox"/> 개 회 식 [제1차 본회의] 1. 제22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회 기 : 2009. 2. 9. ~ 2. 11. (3일간)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input type="checkbox"/> 산 회 <input type="checkbox"/> 소위원회 활동	제안설명
2월10일(화) 10:00	<input type="checkbox"/> 2009년도 직속기관 주요업무계획보고	본회의휴회
2월11일(수) 11:00	[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input type="checkbox"/> 산 회 <input type="checkbox"/> 폐 회	의 결

(별첨 2)

의안번호	제 1 호
의 결 연 월 일	2009년 2월 일 (제 225 회)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09년 2월 2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5-1
----------	-------

제출연월일 : 2009. 2. 2.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행정기관 효율화 추진 계획에 따라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이 조정 배정[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제도기획과 - 6526(2008. 12. 29)]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변경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여 도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충청북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031명에서 152명이 감원된 2,879명으로 함(안 제2조)

(1)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 : 변동없음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소속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

3,018명⇒2,866명(감 152명)

나. 초과 현원은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간주(안 부칙 제2조)

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 조문 변경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발췌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관련부서간 합의여부 :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의거 입법예고 생략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5조"를 "제33조"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제17조제5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7조제5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교육청에"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으로"로, "3,031명"을 "2,879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3,018명"을 "2,866명"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그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제17조제5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원의 총수) <u>도교육청에</u>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3,031명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 3,018명 	<p>제1조(목적) ----- ----- 제33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7조제5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 ----- ----- -----</p> <p>제2조(정원의 총수) <u>충청북도교육감 소속으로</u> ----- 2,879명 ----- 1. (현행과 같음) 2. ----- ----- 2,866명</p>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33조 (공무원의 배치) ①제30조제5항의 보조기관과 제32조의 교육기관 및 제34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로써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제30조제5항의 보조기관과 제32조의 교육기관 및 제34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740호)

제14조 (표준정원의 책정) ①교육감은 정원관리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정원(이하 "표준정원"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교육감은 교육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원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보정한 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월 또는 7월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경계변경 또는 종류의 변경으로 인하여 시·도교육청의 표준정원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시·도교육청의 표

준정원 산정방법이 마련될 때까지 학교수·학급수 및 지역교육청수 등이 유사한 다른 시·도교육청의 표준정원을 참작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정원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4.1.29]

제19조 (정원의 규정) ①시·도 교육청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4.1.29>

1.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②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범위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기관별로 당해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개정 2008.3.4 교육인적자원부령 제 1호)

제3조 (표준정원의 산정<개정 2004.1.30>) ①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교육청별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은 별표 1의 산식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4.1.30>

②교육감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직렬별로 정원관리현황을 작성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8.3.4>

③영 제14조제2항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보정한 정원"이라 함은 표준정원에 보정비율 1.03을 곱하여 산출한 정원(이하 "보정정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4.1.30, 2008.3.4>

④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을 매 2년마다 8월중에 산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4.1.30, 2008.3.4>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을 산정함에 있어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버린다. <신설 2004.1.30>

[별표 1] <개정 2004.1.30>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표준정원 산식(제3조제1항관련)

1. 특별시·광역시

현정원에 대한 조정정원+(5.793702×학교수 증감분×0.6+0.1919011×학급수 증감분×0.4)×1.15+70.9×2국6과 지역교육청 증감분+57×4과 지역교육청 증감분+40.3×2과 지역교육청 증감분

2. 도

현정원에 대한 조정정원+(5.022132×학교수 증감분×0.6+0.3594281×학급수 증감분×0.4)×1.15+61.6×2국6과 지역교육청 증감분+51.5×4과 지역교육청 증감분+31.6×2과 지역교육청 증감분

비 고

1. 현정원에 대한 조정정원은 각각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가. 특별시·광역시

[현정원+{1.720094×(학급수÷학교수)의 자연로그값}×학교수+168.1659×2국6과 지역교육청수+177.8311×4과 지역교육청수+105.4566×2과 지역교육청수+161.7123]÷2

나. 도

[현정원+{1.910288×(학급수÷학교수)의 자연로그값}×학교수+123.1787×2국6과 지역교육청수+49.33297×(2과 지역교육청수+4과 지역교육청수)+225.1432]÷2

2. 학교수·학급수 및 지역교육청수는 현정원을 조정한 연도의 4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학교수·학급수 및 지역교육청 증감분은 각각 현정원을 조정한 연도에 대한 당해연도의 증감분을 말하며, 해당연도의 4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제도기획과 6526, 2008.12.29)

구 분	표준정원	보정정원	비 고
충청북도교육청	2,879	2,965	

(별첨 3)

제22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9. 2. 11. 11:00)

조례 심사 보고서

1.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2월 2일, 충청북도교육감
- 나. 상정 및 회부일자 : 2009년 2월 9일, 제2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다. 소위원회 심사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9년 2월 9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이 장 길)

가. 제안이유

-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행정기관 효율화 추진 계획에 따라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이 조정 배정[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제도기획과 - 6526(2008. 12. 29)]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변경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여 도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충청북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031명에서 152명이 감원된 2,879명으로 함(안 제2조)
 -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 : 변동없음
 -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소속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 3,018명⇒2,866명(감 152명)

- 초과 현원은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간주(안 부칙 제2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 조문 변경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심사보고 주요내용

-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교육행정기관 효율화 방안 세부 시행 계획에 의해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이 **일괄적으로 5% 감축·조정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 학령인구 감소,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경제·사회적 상황변화, 정부 감세정책 등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2010년 ~ 2011년 표준정원 정기고시에 앞서 우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제22조에 의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2008년 정원 대비 표준정원의 경우 152명, 보정정원의 경우 156명을 각각 감축하였음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 조정 배정 현황】

- 표준정원 : 2,879명(2008년 표준정원 대비 5% 감축)
- 보정정원 : 2,965명(표준정원 ×1.03)
- 지방공무원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 규모

표준정원			보정정원			비고
2008년	2009년	감축정원	2008년	2009년	감축정원	
3,031명	2,879명	152명	3,121명	2,965명	156명	

- 보정정원 : 급격한 행정수요 발생에 신속적 대응 등 시도교육청의 자율성 부여를 목적으로 표준정원의 3%를 더한 정원으로, 사용시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과 정원 조례 개정 후 사용해야 하며, 국고에서 인건비 지원이 되지 않는 정원임

○ 아울러, 정원 조정에 따른 초과 현원에 대하여는 초과 현원이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안 부칙 제2조에 명시하였으며,

○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 조문 변경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임

○ 동 개정안은 행정수요에 맞는 인력조정 및 효율적 배치를 통한 교육청 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교육행정기관 효율화 방안에 따라 일괄적으로 감축·조정된 표준정원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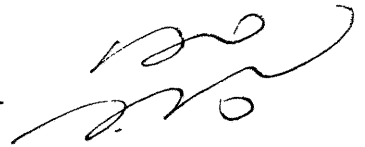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09. 2. 11.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김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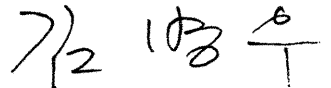
간사

서수응



위원

김병우



성영용



이상일



정무



(별첨 4)

직속기관주요업무계획보고 회의록

·일 시 : 2009. 2. 10.(화) 10:00

·장 소 : 소위원회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직속기관주요업무계획보고]

(10시 00분 회의시작)

● 의사담당 곽종수

지금부터 교육과학연구원 등 6개 직속 기관의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어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곽정수

존경하는 동료 교육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과학연구원 박상필 원장님, 단재교육연수원 하재성 원장님, 중앙도서관 백남권 관장님, 학생교육문화원 김용환 원장님, 학생종합수련원 황용수 원장님, 학생외국어교육원 변상권 원장님!

이렇게 한 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주요업무 보고를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직속기관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하게 되는 주요업무 계획은

금년 1년간의 교육활동 및 교육행정 계획이 총 결집되어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계획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그 내용 및 기관별 현황과 현안 문제 등을 파악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는데 활용하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회가 교육위원님과 직속 기관장님들 간의 진지하고 심도있는 협의의 자리가 되어 충북교육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하며 간단하게 인사의 말씀으로 갈음합니다.

참석하신 직속기관장님을 대표해서 교육과학연구원 박상필 원장님께서 간단히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학연구원장 박상필

존경하는 교육위원님!

부푼 꿈을 안고 출발한 기축년도도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뜻하시는 소망과 꿈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충북교육의 힘찬 발전과 일류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 값진 지도 조언을 베풀어주시는 곽정수 의장님과 김부웅 부의장님, 교육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 어느때보다도 변화의 속도가 빠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에 거는 기대와 요구도 더욱 크고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새정부 출범에 따른 각종 정책의 빠른 정착을 위한 교육정책과 당면한 교육현안 문제에 도움을 주시고자 오늘과 같은 의미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6개 직속기관을 대표하여 심심한 감사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곽정수 의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그동안 교육에 대한 교육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우리 충북교육은 내실 있는 발전은 물론, 교육자치 시대에 걸맞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우리 6개 직속기관은 일류 충북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현장 지원, 미래창조 고품질 연수, 지식정보제공과 평생교육 진흥, 전인교육을 통한 청소년들의 교양증진, 소질계발, 외국어 의사소통을 갖춘 경쟁력있는 충북 인재육성 등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 직속기관 전직원들은 창조적 미래, 행복한 학습사회 실현을 위해 자기 희생과 봉사로 열심히 노력하여 충북교육의 발전에 한 알의 밀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걱정수

박상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직속기관 주요 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하실 순서는 교육과학연구원, 단재교육연수원, 중앙도서관, 학생교육문화원, 학생종합수련원, 학생외국어교육원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기관별 일반현황 등 공통적인 사항은 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요사업 및 특색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10분 이내로 보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별로 보고를 들으신 후,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순서는 위원님들 신청 순에 따라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가능한한 간략하게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교육과학연구원 박상필 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연구원, 단재교육연수원, 중앙도서관, 학생교육문화원, 학생종합수련원, 학생외국어교육원 순으로 업무 보고)

▶ 참 조 :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별책)

● 의장 걱정수

변상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속기관주요업무계획보고]

회의를 시작한 지 57분이 되었습니다.

11시 20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25분 회의계속)

● 의장 박정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직속기관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위원님들 신청 순에 따라서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영용 위원 거수하여 발언신청)

성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영용 위원

교육위원 성영용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에 충북교육사 발간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게 몇 년만에 만드는 거죠?

●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 김학봉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9년 5월달에 한번 했고요 30년 동안에 지금까지 발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작년부터 이것을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금년에 이게 확정이 돼서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돼 가지고 금년 12월달에 1,000부를 이렇게 발간할 예정입니다.

● 성영용 위원

1,000부 해 가지고 이게 충분히 그렇게 각 교육청이나 관련된 데 충분히 배부가 될 수 있어요?

●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 김학봉
예, 학교하고.....

● 교육과학연구원장 박상필

1,000부가 아니라 1,000쪽의 2,000부.

● 성영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교육과학연구지원단 규모에 대해서 교육연구사가 추천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응모방법으로 하면 안돼요? 연관돼서 아는 사람만 운영지원단이 조직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

●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 김학봉

작년에 초등 10명, 중등 10명 해서 20명으로 편성을 해서 해봤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됐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연구학교 중에서 연구사들이 지도 못하는 학교, 이렇게 해서 연구사들이 요구하는 그런 운영지원단을 운영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 성영용 위원

그런데 그 연구사가 교육연구사가 추천해서 지금 구성이 되기 때문에.....

●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 김학봉
그렇습니다.

● 교육과학연구원장 박상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처음으로

한 사업인데 지금 우리 성 위원님 지적대로 20명 구성하는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하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연구사가 추천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다방면으로 의견을 들어가시고, 여기 저기 의견을 들어서 구성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성영용 위원**

그 응모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 **교육과학연구원장 박상필**

예, 알겠습니다.

● **성영용 위원**

연구학교 2개는 어떻게 배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원에서 하는 거예요?

● **교육과학연구원장 박상필**

연구학교 지정요?

● **성영용 위원**

예

● **교육과학연구원장 박상필**

연구학교 지정은 응모해 가지고 도교육청에서 지금 교육청에서 지금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 **성영용 위원**

앞에 연구학교 배정 및 활동내역 해서 교육청에서 하지 않고.....

● **교육과학연구원장 박상필**

지원단이 조직이 되면 그 지원단에게 연구학교를 배정하는 거 아마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 **의장 박정수**

답변을 하실 때는, 속기상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영용 위원**

다음 단재교육연수원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연수운영 계획에 지금 잘돼 있습니다만은 제가 전번에 잠깐 질의드렸지만 최대한 사이버연수로 전환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조금 더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단재교육연수원장 하재성**

단재연수원장 하재성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 않아도 연수생들 설문을 받아보면 너무 교육과정이 딱딱하다, 그래서 힘이 든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중간에 시작하기 전이라든지 중간이라든지 후에 사이버연수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대로 올 금년에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 **성영용 위원**

자격연수에서는 거의 다 출석 말고 사이버로 많이 하는 걸로 나타나 있는데 출석 직무연수 같은 것도 가능한한 좀 많이 배려해 주십사 하는 것하고요, 두 번째는

[직속기관주요업무계획보고]

교장연수나 교감도 마찬가지로 관리
자로서 일반행정에 대한 것을 지금 교장
선생님이 너무 몰라요, 행정실장님이 갖
다 이래 하면 “어 그러” 그러고 찍고서
내용은 모르시거든. 여기에 일반행정
관련 그 부분을 조금 더 강조를 하셔서
교과에 충분히 공부를 해서 나가서 실무
에, 잘 몰라서 찍는 경우가 없도록 조금
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단재교육연수원장 하재성

단재 연수원장 하재성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아주 시의적
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장이나 교감 자격연수 그때에
실무행정에 대한 교육과정을 적극 반영하
겠습니다.

● 성영용 위원

세 번째는 교육과정이 요새 골프가 예
전에는 사치성이었는데 이제 일반 운동이
다 됐거든요. 그래서 골프연습장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안돼요? 우리 교장선
생님들 배워가지고 나중에라도 기초라도
배워놓으면 어디 가서 골프 얘기할 때 충
분히 골프에 대해서도 아는구나 하는 정
도로 해놓고 나중에 퇴직해서라도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좋지 않을까
이래 생각하는데 연수 중에 시간을 넣고
연습장 같은 거 만들어 놓을 용의는 없으
신지.

● 단재교육연수원장 하재성

지금 현재 저희 각종 연수에 생활체육
으로 골프 연수를 넣고는 있습니다. 넣기
는 넣는데 저희 원의 골프연습장 설치 문
제는 장소는 있는데 지금까지 아직 그쪽
에 들일 예산 확보 문제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좀 망설이고 있는 중인데 마침 말
씀을 해 주시니 한번 예산에 적극 반영토
록 노력하겠습니다.

● 성영용 위원

꼭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돼
서 말씀드린 겁니다.

● 단재교육연수원장 하재성

고맙습니다.

● 성영용 위원

그 다음 중앙도서관에 대해서 두세 가
지만 얘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자료 확충에 도서구입비
가 1억 8,500만원이 지금 예산 반영이 돼
있죠?

● 중앙도서관장 백남권

예

● 성영용 위원

이걸로 한 권당 한 만원꼴 친 건데 충
분히 될 것 같고 디지털콘텐츠 구입이
2,000만원 돼 있죠?

● 중앙도서관장 백남권

예, 그렇습니다.

● 성영용 위원

e-book이라든가 DVD, 오디오북 800점을 2,000만원 가지고 구입이 되겠어요? 필사는지.

● 중앙도서관장 백남권

중앙도서관장 백남권입니다.

이것은 DVD나 오디오북은 간단한 소모품성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 성영웅 위원

소모품 쪽으로 사신다 이거죠.

● 중앙도서관장 백남권

예

● 성영웅 위원

한 800점이나 사는데 예산은 2,000만원 밖에 안돼 있어 가지고 이거 어떻게 쓰려나 해서.

23쪽에 어르신 봉사활동 아카데미 운영하는데 55세 이상 노인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굉장히 불쾌하네요, 55세.

(웃음 소리)

55세면 요새 장년 아니에요?

● 중앙도서관장 백남권

중앙도서관장 백남권입니다.

저희가 이것은 이 분들이 또 연수를 받고 또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돼 있어서요. 그리고 활동할 수 있는 연령층으로 보기 때문에 기준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 성영웅 위원

‘노인’자가 기분 나쁘다는 거죠.

학생교육문화원에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아동열람실에서 도서관 운영하고 있는데 이 도서관하고 같이 합해서 업무의 효율화를 한다든지 또 사서직도 필요하잖아요. 지금 사서직 한 명이 근무하죠?

● 학생교육문화원장 김용환

지금 사서직이 2명 있습니다.

● 성영웅 위원

같이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 학생교육문화원장 김용환

저희 학생교육문화원의 도서관은 학생들 책을 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아동도서관.

● 성영웅 위원

글쎄 아동이나 어쨌든 도서 쪽이면 우리 도서관에서 전부 다 해준다든지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업무의 중복성도 안되고. 도교육청 직속기관으로서 조금.....

도서관장님하고 한번 상의하셔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택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수영장의 수익은 어떻게 되나요.

돈이 좀 남아요?

● 학생교육문화원장 김용환

작년도 학생수영장 수입금은 11억 3,200만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한 14억 돼 가지고 한 2억 정도 이렇게 아직까지

[직속기관주요업무계획보고]

손실입니다.

● 성영웅 위원

손실이 되지 않게끔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우리가 일반인을 받기 때문에 애깁니다. 우리가 학생들만 전적으로 하게 된다면 다 지원해야 할 부분이지만 일반인을 받는 데서, 그 구분해서는 안해 보셨죠? 구분을.

● 학생교육문화원장 김용환

지금 학생하고 일반인하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 이용자가.....

● 성영웅 위원

아니 학생 관계는 수익을 따질 필요가 없고 일반인을 운영하는데 수익성, 별도.

● 학생교육문화원장 김용환

별도 일반인 수익성요?

● 성영웅 위원

예. 거기에서 우리 총 투자액에 대한, 매년 투자액에 대한 비중이라든지 이런 거. 우리가 학생은 수익을 안 본다 하더라도 일반인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수익성 관계.

● 학생교육문화원장 김용환

지금 거의 다 일반인들 수입입니다. 학생들 수입은 별로 없어요.

● 성영웅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 가격을 높이든지 어떤 타 수영장하고는 가격 차이가 조금 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 학생교육문화원장 김용환

그래서 우리가 가격을 올리려고 다른 수영장의 입장료를 전부 비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저희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못 올리고 있습니다.

● 김부웅 위원

학생들만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면 당연히 투자하는데 일반인들한테 손해를 본다면 문제가 있어요.

● 성영웅 위원

그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드리는 거예요.

● 학생교육문화원장 김용환

금년부터 도내 4학년 학생을 위주로 해서 학생수영장을 많이 체험학습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성영웅 위원

글쎄 어떤 방법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요.

● 학생교육문화원장 김용환

알겠습니다.

● 성영웅 위원

이 두드름 문화강좌에 관해서 중학생 4,5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선발 방법은 어떻게 돼요, 연 10회인데. 한번에 450명씩 이래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 학생교육문화원장 김용환

예, 연10회 유명한 강사를 초청해서 할 계획인데 학생들의 신청을 받든지 아니면 학교별로 안배를 해서 선착순 모집.....

● 성영용 위원

세부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 학생교육문화원장 김용환

아직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우고 있습니다.

● 성영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학생종합수련원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족사랑캠프하고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직무연수 관계 선발방법은 어떻게 할 있어요?

● 학생종합수련원장 황용수

학생종합수련원장 황용수입니다.

가족사랑캠프는 교직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우선 지금까지는 이용이 편리한 진천, 청주, 청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 성영용 위원

타 지역은 안 하고요?

● 학생종합수련원장 황용수

예, 현재까지.

직무연수 관계는 전체 도내 교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성영용 위원

우리 서해수련원에 수입 관계는 어떻게 돼요? 우리 교육가족 외에 일반인들도 우리가 숙박을 하잖아요.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 학생종합수련원장 황용수

지금 규정에 교육가족으로 돼 있습니다.

● 성영용 위원

교육가족만? 일반인들도 많이 오잖아요.

● 학생종합수련원장 황용수

글쎄 비공식적으로 교육가족을 연계해서 가족이 오는지는 몰라도 일반인들은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받지 못하게 돼 있어요.

● 성영용 위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다문화가정 가족캠프에 관해서, 추진이 8월 20일부터 8월 21일 1박2일로 하는데요 80명으로 지금 8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연인원 160명으로 하고 있는데 나머지 80명의 운영 방법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 학생종합수련원장 황용수

80명이라는 것은 20가족 기준입니다. 한 가족에 4명 기준으로 해서 20가족 80명을 대상으로 잡은 거고요, 거기 1박2일이니까 160명으로, 연인원으로 160명을 잡은 겁니다.

● **성영용 위원**

이해하기 나름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외국어교육원은 지금 현재 규모가 작잖아요?

● **학생외국어교육원장 변상권**

예, 맞습니다.

● **성영용 위원**

늘릴 계획은 없으세요? 장기적인 계획 같은 것은 안 갖고 계시는지.

● **학생외국어교육원장 변상권**

학생외국어교육원 변상권입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미 알고 있 다시피 분원을 말씀 주변에서 많이 해주시는데, 또 교육감님의 공약사업도 그것이라고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우리 은 탄리에는 거기를 어떻게 확장해서 하기에 는 마땅치 못하다고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주 시내에다가 이렇게 분원을 한다면은 접근성에서 대단히 유익하기 때문에 보다 나은 인기 있는 분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성영용 위원**

저도 교육감님 공약사업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내년 5월이면 교육감님 임기 끝나요. 그거 내년에 못하거든. 올해 계획에 들어

갔어야 되는데 올해 주요업무계획에 안 들어 있으니까 교육감님 거짓말쟁이 만드 는 것밖에 안돼요.

● **학생외국어교육원장 변상권**

그 이야기의 시작은 제가 권한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 **성영용 위원**

아니 그래서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이라도 세워서 예산이나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못하는 것은 몰라도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셔서 올해 정도는 이것이 추진이 돼서, 공약사업 관계니까 해당 원에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어떤 별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 **학생외국어교육원장 변상권**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 문제 국제팀과 상의하고 학교정책과하고 상의해서 거론될 수 있도록 시작하겠습니다.

● **성영용 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곽정수**

성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정무 위원 거수하여 발언 신청)

예, 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 위원

정무 교육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충북교육을 일류 충북교육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감동연수를 시키기 위하여, 또 체험중심의 인성교육과 교육문화를 창조하며 국제화시대를 선도하는 등 지역인적자원개발에 기여하는 직속기관의 주요업무를 접하면서 그 어느 해보다도 알찬 계획을 세워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교육과학연구원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박상필 원장님은 이번에 정년퇴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끝까지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시는 데 경의를 포함합니다.

박상필 원장님께서 그동안 충북교육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족적은 길이길이 빛날 것이라 믿습니다.

아까 성영용 위원님께서도 충북교육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대개 교육사를 지역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한 것을 보면은 무슨 교육통계나 교육연감처럼 이렇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도 뜻 깊겠지만은 지난 시대의 훌륭한 교육

자를 발간하는 쪽으로 그 교육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분들의 사례를 많이 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충북교육사가 우리 충북교육의 발자취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산 자료로 발간되기를 부탁드립니다.

19쪽에 보니까 각종 대회가 있습니다. 각종 도대회 하고 전국대회가 나와 있는데 도대회를 전국대회 하기 전에 대개 1개월 전이나 2개월 전이나 조금 빠르면 3개월 전에 도대회를 여는데 과학썩잔치는 전국대회가 10월 24일날 있는데 도대회를 4월에 해요. 6개월 전에 실시하는데 이렇게 빨리 하는 것이 좋은 건지. 다른 데는 1개월이나 2개월 이렇게 잡았는데 이것은 6개월 전에 잡았어요. 이상해서 물어보려고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 교육과학연구원장 박상필

교육과학연구원 박상필입니다.

아마 과학썩잔치는 과학의날 행사, 과학주간에 아마 과학의달 즈음해서 아마 그것을 한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물론 저기 있는데 이것만은 과학의달 4월 21일날 과학의날을 맞춰서 행사가 많으니까 그때 맞춰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특별한 저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정무 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니 너무 일찍 하길래 무엇 때문에 그

리는지.

다음은 단재교육연수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9쪽에 학교현장 중심의 연수내용 운영을 살펴보면 1-3-1 학력신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 연수는 38개 과정, 그 다음에 2는 학교경영 능력 향상 및 지도력 함양은 7개 과정, 교직사회 적응 능력 향상 연수는 9개 과정, 자격연수 과정은 6개 과정, 연수의 특성화 및 현안 과제 해결 능력 신장은 18개 과정 해서 모두 78개 과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27쪽에 보시면 2009년도 교육연수운영 계획을 보면 교육연수 과정이 자격연수 6개, 출석 직무연수 30개, 원격 직무연수 18개 해서 모두 54개 과정인데 앞과 뒤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게 왜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 단재교육연수원장 하재성

단재교육연수원장 하재성입니다.

글쎄 제가 앞하고 뒤를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살펴보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당장 여기서 이것을 비교하기가 어려워서 시간을 주시면 한번 검토하고 말씀을 드리면 안될까요?

● 정무 위원

이상해서 물었으니까 잘해 주시고, 다음에 중앙도서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6쪽에 도서관 운영의 기본 방향을 보면 일목요연하게 잘 짜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를 살펴보면 16쪽에 열람실 운영에 있어서 야간 개관 시간을 밤 10시 11시까지 연장 운영하면 개관일수가 연 340일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고객 중심의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의 배려를 해 준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340일을 개관하면 개관하지 않는 날은 25일 정도인데 이게 정말 가능한 건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도서관장 백남권

중앙도서관장 백남권입니다.

1년 중 명절 공휴일 휴관일은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저희가 매주 월요일이든지 한 달에 세 번째 월요일날 이렇게 휴관일로는 정해 있습니다만 연장하는 그 시간하고, 그 다음에 그 휴관일날 열람실만 개관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때는 또 저희가, 이 말씀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파트타임으로 쓰는 그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휴무일날 또 따로 쓰는 직원들이 비정규직으로 있기 때문에 운영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 정무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다

큰 공무원은 주5일제 근무를 해서 토요일 날 일요일날 이렇게 휴무하는데 밤10시 11시까지 연장근무를 하는데다가 연 340일 개관한다고 그러니까 너무 과다 근무에 직원들의 복지적인 문제에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 중앙도서관장 백남권

예, 그런 문제는 해소하고 있습니다.

● 정무 위원

그리고 27쪽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증설에 대해서 한 가지 물었는데 아까 주요업무설명 하실 때도 잠깐 나왔었는데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장애 시설을 설치 점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시각장애인이 제일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아까 점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외에도 그 설치가 필요한 것이 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 중앙도서관장 백남권

중앙도서관장 백남권입니다.

우선은 현관에 들어오면서 시각장애인이 다닐 수 있는 표지 길이 있습니다. 그게 돼 있고요, 현관에 들어서면서 우측이 종합간행물실이었는데 그 장소를 이미 작년에 리모델링 해서 시각장애인 전용

점자도서관을 이용하려고 그 시설을 해놨고요, 금년도에 내부 설비를 갖춰서 4월 20일경에 개관할 계획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 정무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학생교육문화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7쪽에 운영의 기본방향의 도표가 나와 있는데 다른 직속기관하고 좀 특이해서, 이게 이렇게 보면 맨 위에 꿈을 키우는 교육문화 창조, 운영지표에서 청소년 교양증진 정보 제공 이렇게 죽 나와 있습니다.

차라리 운영지표가 위에 가 있으면 좋겠는데 운영지표가 밑에 내려와 있고 계가 이렇게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보니까 위에 있는 것이 운영지표 같고, 꿈을 키우는 교육문화창조 여기 운영지표로 나와 있는 것은 운영중점이나 운영시책으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 학생교육문화원장 김용환

학생교육문화원장 김용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지표를 위주로 해서 가운데 배치를 했고요, 사실은 우리 하나의 비전을 제시한다고 그럴까 전체 타이틀을 꿈을 키우는 교육문화 창조로 해서 맨 위에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 정무 위원

그래서 위에는 지표나 중점이나 이런 말을 안 넣었어요. 그래서 운영지표라는 말도 차차리 뺐으면 오히려 더 좋지 않았을까.

● 학생교육문화원장 김용환

다음에 더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정무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학생교육문화원의 2009년도 주요업무를 살펴보면 크게 9개 분야로 구분하고 38개 과정의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범위한 사업 중 학생교육문화원에서 그 특성에 비추어서 꼭 중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이 무엇인가,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학생교육문화원장 김용환

학생교육문화원장 김용환입니다.

우리 학생교육문화원의 사업은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시하고 있는 것은 다 중요하지만요 첫째 우리 안전체험관이 상당히 학생들로부터 또 저학년으로부터 호응이 좋습니다. 그것을 운영을 잘해서 어린이들에게 안전에 대한 의식을 어려서부터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작년도에 개원한 학생문화원의 공연장, 또 체험학습실을 활성화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문화에 좀더 접근을 쉽게 해주고, 그리고 학교에서 쉽게 하지 못하는 그런 체험학습을 문화원 체험실에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가장 우리가 핵심 수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정무 위원

그런데 이제 그 특화사업을 보니까 두드림 문화강좌를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두드림 문화강좌를 특화사업으로 선정한 그 교육적 배경이랄까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교육문화원장 김용환

학생교육문화원장 김용환입니다.

2009년도에 특화사업으로 두드림 문화강좌를 선정을 했습니다.

두드림이라는 것은 거기에 나와 있듯이 꿈을 이룬다, 꿈을 두드린다 이런 뜻으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과서에 의한 수업을 하다보면 교과서 밖의 중요한 내용의 강의를 들을 기회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우리 교육문화원에서 전국 국내에서 아주 유능한 강사를 방학을 제외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연10회 정도 초청을 해서 1회에 한 4,5백명씩 참석을 시켜서 강의를 듣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평소에 자기 학습동기를 확실히 갖게 하고 그리고 또 그런 강

의를 들음으로써 장애 자기 발전에 대한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 정무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학생종합수련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7월에 제가 지인들하고 임해수련원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가봤더니 수련원 직원들이 아주 친절한 서비스를 해 주시고, 또 잘 정돈된 편의시설을 조금도 불편함이 없이 잘 이용하고 와서 모두가 만족스럽게 얘기를 하면서 좋은 추억을 담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5쪽에 역점사업을 보니까 첫 번째가 가족사랑캠프, 두 번째가 장애우와 함께 하는 바다체험, 세 번째가 다문화가정 바다캠프가 있는데 모두가 다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 중 본 위원은 장애우와 함께 하는 바다체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방침을 보면 장애 정도가 미약하여 바다체험 활동이 가능한 학생이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특색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보호자를 대동하더라도 불가능한 학생들도 선정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한 학생들이야 그 다음에 기회가 또 있겠지만은 그 종종 장애로 평생 죽을 때까지 바다구경 못할 정도로 그런 애들도 있을텐데 오히려 그런 쪽으로 생각을 바꾸셔서 종종 장애우들을 위해서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이 조금만 배려를 해 주시면 그들이 바다까지 못 가더라도 임해수련원에 와서 하룻밤 잔 것만 하더라도 아니면 임해수련원 바다만 바라본 것만 하더라도 아마 큰 감동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학생종합수련원장 황용수

학생종합수련원장 황용수입니다.

저희들이 이 계획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장애우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무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좋은 의견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 잡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무 위원

그런 쪽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학생종합수련원장 황용수

예, 감사합니다.

● 정무 위원

다음 마지막으로 학생외국어교육원에

[직속기관주요업무계획보고]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우리 원의 운영목표에 보니까 CBFLIS 해서 약자가 있는데 그 아래에 Creating a Better English Education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 밑에 약자를 딴 건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 학생외국어교육원장 변상권

보다 나은 영어교육을 저희들이 해 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갖다가 CBFLIS에, 저희 원의 약자가 이제 CBFLIS인데요 그거에 대한 약자, 우리 원의 이러한 더 좋은 프로그램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창조해 나간다는 마음의 다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 정무 위원

그러면 이것을 알기 쉽게 어디다가 토를 달아준다든지 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 학생외국어교육원장 변상권

CBFLIS는 맨 앞에 있습니다.

● 정무 위원

잘 몰라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곽정수

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단재교육연수원장 하재성

의장님, 제가 아까 질문하신 거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곽정수

그래요, 하 원장님 말씀하세요.

● 단재교육연수원장 하재성

제가 지금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게 거기 뒤에 표에는 경영실무 뭐 수업전략과 기법, 상담능력신장, 진로교육 이런 식의 중복되는 그런 제목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앞에 종합하다보니까 앞에 숫자가 줄어서 그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 정무 위원

앞에는 많은데 뒤어를 보니까 없길래.

● 단재교육연수원장 하재성

저도 살피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정무 위원

예, 알았습니다.

● 의장곽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우 위원 거수하여 발언 신청)

예, 김병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우 위원

교육위원 김병우입니다.

직속기관장님들의 성심 어린 브리핑에 감사를 드리고요, 직속기관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지난번 금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또 짚어봤고 점검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단위사업이나 업무보다는 각 직속기관의 고유 기능이랄까 역할 성격이랄까 이런 데 대해서 사실 질의를 드

리면서 생각해볼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과학연구원 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기관 방문 때 제가 질의 겸 해서 제안을 드렸던 사항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 교육과학연구원장 박상필

예, 교육과학연구원 박상필입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그게 어떻게 실제로 검토가 되고 반영이 되는지를 궁금해서 한번 다시 여쭙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 본연의 기능이 어느 영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과학연구원장 박상필

글쎄 어떤 게 주다 이렇게 따지기는 어렵지만은 교육연구원 쪽이 주가 되겠죠.

● 김병우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연구원의 연구 기능이 좀 없는 것 같다, 그런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원의 영역이랄까 그 과정을 이렇게 보니까 여러 기관들이 통합되어서 지금의 교육과학연구원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연구원의 시청각 교육원이 또 합해지고 또 과학관이 합해지고 거기에다가 진로교육 영역이라든지 영재교육까지 이렇게 부

과되다보니까 본연의 연구기능이 퇴색하고 실종한 감이 없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다보니까 주로 업무가 교육행사 위주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 주요사업도 보니까 역시 무슨 대회, 교실, 연수, 교육행사 위주 사업이 주로 되고 있는데 올해 핵심 슬로건도 일류 충북교육 실현을 위한 학교현장 지원인데 직속기관으로서 지원을 내세운 것은 좋은데 본 원은 교육행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연구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주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연구원이 우리 충북교육에 씩크탱크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이 이끄는 충북교육의 전략 사령부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본청 내에도 기획파트나 정책 단위가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한 연구지원까지 좀 본 원이 맡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국가 차원의 교육에 대해서 이제 한국교육개발원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그런 기능을 지역교육에서는 연구원이 맡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본원의 기획연구부의 기능 중에 교육일반시책 연구가 있는 걸로 봤습니다. 혹시 금년에 그 부서에서 교육일반시책에 대해서 연구한 사례가 혹시 있으신가요?

● **교육과학연구원장 박상필**

교육과학연구원장 박상필입니다.

지금 김병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저도 100% 공감합니다. 제가 1년 반 원장을 하면서 교육과학연구원이 지금 교육연구로서 기능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과학쪽 정보쪽 행사만 위주로 가고 과학전시관 가지고 이렇게 이어가는 그런 저기가 됐는데 사실 교육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획연구부 연구사가 투입됩니다. 처음에는 연구사 넷이 있다가 줄고, 또 금년 8월에 또 줄고 그래서 지금 연구사가 초등 하나, 중등 하나 이렇게 있다보니까 어떤 충북교육에서 그게 이렇게 내세우는 그런 저기를 사실은 교육시책을 연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 또 하나 저기 된 게 충북교육사에게 많은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셔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업무도 사실 핑퐁으로 도교육청에서 하느냐 연구원에서 하느냐 왔다갔다하다가 결국은 연구원에서 예산만 그럼 따 달라, 도교육청에서 하겠다 이렇게 하더니 결국은 저희 연구원으로 사업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사업도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정말 형식적인 교육사가 아니고 알찬 저기를 하려면 사실 기획연구부의 연구사 2명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또 금년에 이번에 구조조

정이니 뭐니 해 가지고 지금 진로영재부도 아마 지금 T/O가 연구관이 하나 주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들리는데, 인원은 자꾸 감축되고 그래서 하여튼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교육연구의 어떤 시책적인 이런 연구한 것은 없습니다. 기획연구부에서 연구학교 지도한 거, 영어 듣기 평가한 거, 학력 평가한 거 이런 정도인데 시책 평가한 것은 솔직히 미흡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연구원 내의 연구사님들 선발이나 배치나 충원이나 이런 부분에 혹시 원장님이 관여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 **교육과학연구원장 박상필**

인사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 **김병우 위원**

거의 본청에서 배치하는 대로 운영만 하시는 거죠?

● **교육과학연구원장 박상필**

예

● **김병우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의 기능을 조정하면서 본청 관련 단위하고 좀 협의를 해서 연구역량을 보강하는 쪽으로 좀 어떻게 애쓰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교육과학연구원장 박상필**

그래서 아까 우리 성영용 위원님께서도

저도 작년에 이제 연구학교지원단 20명 도저히 연구사 2명 가지고는 연구학교 지도도 비효율적이다 해 가지고 제가 생각을 한 게 20명 지원단을 활용해 보자 이렇게 해서 한 건데, 작년에 사실 20명 선정을 하고서 운영을 해보니까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구사들이 추천하다보니까 아는 사람 추천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아까 뭐 공모제로 하면 어떠냐 이런 좋은 의견도 나왔는데, 그런 쪽에서 지원을 받아야만 우리 교육연구원 본래의 기능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저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교육전문직이 연구사 장학사 이렇게 분명히 명칭을 달리하고 있는데 선발과정에서는 구분 없이 일괄 선발하고 배치되는 자리에 따라서 연구사로 불렀다가 장학사로 불렀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 교육과학연구원장 박상필

예, 그렇습니다.

● 김병우 위원

분명히 그 자질이나 기능이 다를 것 같은데. 그죠?

● 교육과학연구원장 박상필

본래 장학사 연구사가 다르긴 다르겠

죠. 그런데 저희 도에서는 뭐 전문직 뽑아서 단재로 가면 연구사고 본청에 근무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 김병우 위원

연구원장님이시니까 고심을 하셔서 건의가 필요하다면 건의 같은 것을 좀 하실 수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과학연구원장 박상필

예, 알겠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그리고 도내에도 사실 교육학 전공을 한 석·박사급이 많다고 듣고 있고 꼭 학위가 아니라도 연구역량이 충분한 그런 교원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분들을 정말로 좀 적재적소에 발굴해서 역할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이제 본 원에서 발간한 충북교육 연구도 보니까 거의 게재된 연구물들이 외부 필자들에게 의한, 그래서 이제 그냥 연구원에서는 편집이나 하고 그런 좀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사들은 정말 연구역량이 있는 분들이 되어 될 테고, 그런 분들에게 연구과제도 주고 시간 여건 같은 것을 주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연구원이 우리 충북교육의 싱크탱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그 당시에 교원연수와 관련해서

[직속기관주요업무계획보고]

이제 연구원에서는 주로 정보화 관련 연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수반 편성할 때 인원이 한 40명 정도가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검토하시기를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 교육과학연구원장 박상필

작년에 지적해 주신 대로 연수는 소인수 해 가지고 가급적 30명 정도 이렇게 하는 쪽으로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혹시 단재연수원장님, 혹시 거기에도 기본적으로 교원연수는 40명 정도 기본단위죠?

● 단재교육연수원장 하재성

예, 그렇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그게 이제 점수부여와 관련되어서 바꾸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 단재교육연수원장 하재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원이 많으면 오히려 점수 받는 게 유리하죠.

● 김병우 위원

그래서 줄이기가 어려운 점이 있느냐 이 말이죠.

● 단재교육연수원장 하재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그런데 요새 보면 학생들 교실 학습도 줄여가는 추세인데 선생님들 40명 이게 사실 연수 받는 선생님들도 너무 많아가지고 좀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재교육연수원장 하재성

저희는 이제 합동강의일 경우 그때는 대강당이나 소강당을 이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각 담당실에서 하는데 이제 자격연수 같은 때에 인원이 배정되면 그것은 어쩔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인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인원이 안 차 걱정이지 그렇게 뭐 과밀학습이 된다가나 그런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 김병우 위원

고맙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 부탁드립니다.

단재교육연수원에 대해서도 전임 원장님 계실 때 기관 방문해서 제가 제안 좀 해서 기관 정체성과 관련되는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단재연수원에 단재가 없다, 그 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 단재교육연수원장 하재성

단재 정신이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저희 원에.

● 김병우 위원

예

● 단재교육연수원장 하재성

그게 이제 그런 말씀하는 분들이 말씀을 여러 번 듣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단재정신에 관한 것은 일단 단재자료관이 있고 우선, 그리고 저희가 생활관도 단재선생님이 쓰신 문동이라는 그런 문동관을 만들고, 그런 것부터 하나씩 해나가는데 실제로 교육과정에는 교육과정 편성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은 필수적으로 해라 내려오니까 사실 단재선생님에 대한 별도의 시간을 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 김병우 위원

단재선생님과 관련해서 교육시설 중에는 현판에 그 호를 모신 걸 비롯해서 단재얼 교육장도 한 10여 년 전에 만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것은 지금 어떻게.....

● 단재교육연수원장 하재성

예,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단재얼 교육장이 따로 있고 단재교육자료관이 따로 있습니까?

● 단재교육연수원장 하재성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료관이 그것을 대응하는 거죠.

● 김병우 위원

그래서 일단 자료 전시해 놓는 걸로 모양을 갖춰놓고 실제로 프로그램에 반영을 못하고 있는 거죠?

● 단재교육연수원장 하재성

예

● 김병우 위원

그래서 이제 시·도교육청별로 교육연수원이나 학생수련 시설에 그 지역에 나는 위인이라든지 교육청 모델 같은 것들이래 기관명 같은 데 모신 예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무교육원, 화랑교육원, 울곡연수원, 사임당 교육원.

그런데 그런 기관들에 비해서도 우리 연수원은 단재선생님을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 연수를 배치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연수에 일부 프로그램 강좌로라도 그렇게 단재얼을 기리고 단재혼을 반영을 하는 프로그램을 꼭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단재교육연수원장 하재성

연구해 보겠습니다.

● 김병우 위원

[직속기관주요업무계획보고]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중앙도서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71쪽을 보니까 입관 인원이 67만여 명이고, 또 열람 대출 인원은 28만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이용 고객을 주민과 학생으로 혹시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 중앙도서관장 백남권

중앙도서관장 백남권입니다.

지금 그 숫자로서의 28만명을 학생이나 주민으로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 김병우 위원

주민이 많습니까, 학생이 많습니까.

● 중앙도서관장 백남권

주민이 많습니다.

● 김병우 위원

학생들은 일과 중에 사실 학교생활에 매이고 주말이나 휴일날이면 이용하기 어려울텐데, 자 그렇다면 우리 충북 중앙도서관이 학생도서관의 이름을 붙이기보다는 그냥 공공, 일반 시민들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공도서관에 가깝죠?

● 중앙도서관장 백남권

예, 제 개인적으로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그래서 이제 사업 중에도 평생교육 사

업이 많이 있기도 한데, 그렇다면 그 공공도서관, 시립도서관의 이런 기능이 크다면 혹시 도서관법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중앙도서관장 백남권

예

● 김병우 위원

종전에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었다가 2006년도 10월쯤에 도서관법으로 통합해서 만들어졌죠?

● 중앙도서관장 백남권

예

● 김병우 위원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지역의 대표 도서관도 만들도록 돼 있던데.

● 중앙도서관장 백남권

예, 그렇습니다.

● 김병우 위원

혹시 우리 도에서는 중앙도서관이 대표도서관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정이 된 것은 아니죠?

● 중앙도서관장 백남권

예, 지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그런데 어쨌든 법에 그것을 만들게 돼 있고, 그렇다면 다시 도립도서관을 신설하지 않는 한 우리 중앙도서관이 그 지역 대표도서관의 기능을 맡게 될텐데 법을 보니까 지역 대표 도서관은 국가나 지자

체가 운영비까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앞으로 정부에서 300개 정도의 공공도서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 시·군교육청도 지금 현재 교육청이 관할하는 도서관 외에도 공공도서관들이 만들어질 것 같고 반가운 방향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런만큼 우리 중앙도서관이 그런 공공도서관 전체를 관장한다고 그럴까 하여튼 그러면서 뭐 독서진흥, 특히 학교도서관 진흥법도 별도로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학생독서운동뿐 아니라 평생교육 차원의 주민독서 활동 같은 것도 다 관장하고 이렇게 할 단위가 될텐데요, 그 관련해서 혹시 지금까지는 예산을 거의 도교육청에서 편성하는 예산에 매여 있었을텐데 지자체에 예산 지원을 요청을 하든지 할 계획이 없으신가요?

● 중앙도서관장 백남권

중앙도서관장 백남권입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꼭 말씀해 주신 사항은 도서관법에 의해서 다 있는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래의 도서관이 거의 시·군청에서 거의 설립해서 운영해오다가 60년대부터인가 언제부터는 거의 교육청쪽으로 와서 설립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06년도에 도서관법을 문광부에서 개정하면서 설립자가 시·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는 설립자가 시·도지사가 되면서 재정권이나 모든 것을 지역에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현재 도청 쪽에서는 아직은 움직이지 않는 걸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학생이나 지역 주민의 지식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당분간 우리가 현재대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유관 기관간에 정책적으로 검토해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병우 위원

우리 충북 중앙도서관이 지금까지는 교육자치 집행청인 도교육청의 직속기관으로만 기능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지역 대표 도서관으로서 위상도 다시 검토를 하고 정립을 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적극적인 마인드를 여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중앙도서관장 백남권

예,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병우 위원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어교육원, 아까 성영용

[직속기관주요업무계획보고]

위원님께서도 짚어 보셨던 문제인 것 같은데 권역별 영어마을이 준공이 되면 그것은 어디 소속이 돼야 되는 겁니까?

● 학생외국어교육원장 변상권

외국어교육원장 변상권입니다.

말씀해 주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충주의 기공식을 제가 갔다 왔는데요 충주 교육장님이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현재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동도 마찬가지로 영동 교육장님께서 운영을 하시고, 저희 외국어교육원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그런데 어쨌든 역할 성격상 일종의 분원 비슷한 기능을 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 학생외국어교육원장 변상권

정보 차원에서는 마땅히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나눔은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관장하는 그런 성격은 아니고, 단 접근성 때문에 저희들이 충주나 제천, 단양, 영동, 옥천 이쪽에서 그것을 북부 남부로 해서 추가로다가 교육감님께서 그쪽으로 그렇게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주가 45%라는 학생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학생들을 거의 반 이상 50% 정도이기 때문에 접근성에서 외국어교육

원이 본원은 은탄리 진천에 있습니다만은 청주시내에다가 외국어교육원이 주관하는 분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청주시내에다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변에서 많이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그런데 이제 그 관리라고 하면 시설 측면이라면 당연히 이제 거리나 이런 걸로 봐서도 인근 지역 교육청이 관할하는 게 더 효과적일지 모르지만 기능면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전문성이 관련이 되는 외국어교육원에서 설립과정이나 이후 운영과정에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살펴드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 학생외국어교육원장 변상권

그런 마인드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그래서 계획에 없어서 아까 성 위원님처럼 약간 궁금증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광정수

김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웅 위원 거수하여 발언 신청)

김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부웅 위원

직속기관장님들, 아주 성의 있는 업무 보고 감사합니다.

같은 교육기관이면서도 오늘 업무보고하신 것처럼 그런 엄청난 일을 하면서도요 학생을 직접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늘 영광이나 보람에서는 뒤안길에 있지 않나 싶기 때문에 직속기관장님들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김병우 위원님과 비슷한 기관의 특성, 업무 이런 것에 대해서 짚어보고 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각급 학교에 파급돼서 교육력으로 꽃피운다는 생각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해서 과학교육연구원 말씀드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우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은 업무의 배열을 보니까 연구원 연구에 대한 업무가 3쪽에 돼 있고, 과학관의 비슷한 업무가 21쪽에 돼 있고, 그러니까 그 업무의 편중이 연구원하고 과학관하고 통합이 되어 있는데 거의 다 과학관 업무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연구원 업무나 과학관 업무나 다 학교 또는 교원들을 지원하는 업무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연구원 업무는 수업연구나

또는 학습력을 제고하는 그런 시책에 더 힘써야 될 것 같고 뒤에 특화사업에 나오는 합시다만은 연구지원단 운영이나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등 이런 특화사업에 더 좀 특단의 노력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주문사항으로 성영용 위원님께서 아까 짚었습니다만은 연구지정 학교 운영 문제인데 그 지정학교를 지정하는 것이요 도교육청에서 지정을 하고 지도는 연구원에서 하고 그러죠?

● 교육과학연구원장 박상필

에

● 김부웅 위원

그거 지정할 때 연구원에서 지정하면 안되는 겁니까?

● 교육과학연구원장 박상필

교육과학연구원 박상필입니다.

우선 제가 두 가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저도 연구원장 가고서부터 제가 연구사들에게도 강조한 것이 이게 우리 교육연구원이 과학 쪽으로만 저기가 된다, 그래서 우리 전문직의 특성을 살리려면 뭔가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것을 제가 많이 강조했는데 그래서 사실 막상 1년 반 되고 보니까 이렇다할 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말씀해 주신 거 100% 동감합니다.

● 김부웅 위원

그것을 찾아보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 교육과학연구원장 박상필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제가 정식으로 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업무 이관해서 국장 선에서 얼핏 되는 것 같이 하더니, 그러면 지정 관계는 이렇게 하더니 아예 업무가 딱 돼 가지고 지정은 여기서 하겠다, 그리고 지도는 연구원에서. 아주 업무가 한계가 딱 내려졌어요.

● 김부웅 위원

그러니까 힘쓰는 것은 내가 하겠다 고생은 너희가 해라 이건데, 이것은 제가 나중에 한번.....

● 교육과학연구원장 박상필

그래서 작년에 저도 거기서 지정은 하되 연구원에서 지도를 했으니까 어느 학교는 뭐가 약점이 있고 강점이 있으니까 이런 걸 의견이라도 듣자 해도 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마라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터치 안 하고 있습니다.

● 김부웅 위원

알겠습니다.

5월달 행정질문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단재 원장님.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씩만 하겠습니다.

이 감동연수 일류교육 참 어떤 분 아이디어인지 근사합니다.

이것을 딱 보면서 참 멋진 구호를 내 걸었구나. 그래서 이거 하나만 봐도 단재 교육원의 금년도 업무가 착 될 것 같다는 이런 예감이 들었습니다.

7,751명을 교육해서 참 이런 분들을 학교 현장에서 다 교육력으로 나타나서 굉장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주문사항입니다.

교장 교감 자격연수 때요, 1주일간 대개 하죠.

● 단재교육연수원장 하재성

사전연수 말씀하시는 거죠?

● 김부웅 위원

예

● 단재교육연수원장 하재성

예

● 김부웅 위원

남부 3군이나 북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인근에 하숙을 하게 되더라구요. 그 분들 여론을 들어보니까 단재원에서 합숙을 하면 좋겠다 이거예요. 가능할까요?

● 단재교육연수원장 하재성

단재 원장 하재성입니다.

지금 저희 문동관에 입소할 수 있는 인원이 48입니다. 48명인데 도에서 그 인원대로만 지정을 해 주시면 다 합숙할 수 있죠.

● 김부웅 위원

청주 시내 있는 분들은 상관 없으니까 희망을 들어서 합숙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 단재교육연수원장 하재성

다른 연수도 지금 현재 저희도 중등임용대상자 그 사람들 지금 40명이 입소해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교장 교감도 그때 다른 연수와 겹쳐서 아주 복잡하면 몰라도 그 분들만 하시는 경우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 김부웅 위원

고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각종 교원 연수에 초청되는 강사를 초빙할 때, 물론 학식이나 덕망을 갖춘 유명 인물들이 초청이 되긴 합니다만 현장을 거쳐온, 현직 체험을 가진 분들 중에서도 좋은 식견, 또는 경험을 수강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분들 모시는 방안도 함께 검토 좀 해 주십시오.

● 단재교육연수원장 하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부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도서관, 저는 중앙도서관 업무를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깜짝 놀란 게 있어요. 2008년도에 여기 수록된 인원을 전부

계산해 보니까 137만 9,175명을 다뤘어요. 야, 이 하루에 약 한 450명씩 들락거리면 평균 340일 치면. 그러면 굉장한 업무인데 이게 보통 봉사정신이나 희생정신 아니고서는 도저히 감당 못할 이런 업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즉 보면서 전부가 대민사업일 뿐이지 우리 대내, 교원이나 학생들을 위한 사업은 미약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것 좀 주문해보고 싶습니다.

일선 교사들한테 독서지도 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한 연수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앙도서관의 업무를 덜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때요, 그런 연수계획을 한번 하실 수 있겠어요?

● 중앙도서관장 백남권

중앙도서관장 백남권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공공서비스 기관으로서 학생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의 지식정보를 전달 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일선 교사의 독서지도 방법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교원연수하고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김부웅 위원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속기관주요업무계획보고]

다음 학생교육문화원입니다.

기획 있을 때마다 제가 거둬 주문하는 사항인데요 문화회관은 학생회관, 박물관, 수영장, 다문화가족문화센터, 학생문화원, 참 관장님, 센터장님 여러 가지 참 이름도 많이 붙기도 하는데 업무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집계를 해보니까 여기도 약 한 55만명 정도가 1년에 지나갔고 금년에 계획된 것이 56만 1,130명이네요. 굉장한 인원이지요. 그래서 문화원의 직원 1인당 얼마씩 돌아가나 봤더니 6,500명. 이것을 200일로 하니까 하루에 33명씩 하루도 안 쉬고, 굉장한 폭주된 업무인데,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 다만 그 중에서, 업무가 여러 가지 중에서 도서업무, 평생교육업무 이런 것은 중앙도서관으로 이관해 주시는 게 어떻겠어요. 예산도 줄이고, 업무도 줄이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 학생교육문화원장 김용환

학생교육문화원장 김용환입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이제 현재 있으니까 저희는 차별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아동도서만 다루고 있고, 도서관이 있으니까 또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평생교육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합한다는 것은 정

책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 김부웅 위원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목은 학생교육문화원인데 뒤에 보니까 평생교육은 거의 다 일반인들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반인들을 도서관으로 옮기자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특화사업에 두드림 문화강좌라는 게 나와서 제가 상당히 눈길을 끌더라고요. 등 두드려 주는 건가, 다리 두드려 주는 건가. 그래서 죽 읽어보니까 이게 꿈을 심어주는 사업이더군 그래요.

그런데 이 학생교육문화원에는 한글사랑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 사랑하는 것을 굉장한 사업으로 펼치고 있는데 꼭 두드림이라고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어떠세요.

● 학생교육문화원장 김용환

글쎄, 이게 처음에 제목을 붙일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꿈을 심어준다라든가 꿈을 이루어준다 꿈을 두드린다고 해서 Do하고 Do는 이제 하다란 뜻이고 Dream은 꿈이다 그래서 Do하고 Dream하고 합성어로 만든 것입니다.

● 김부웅 위원

그 뜻은 분명히 좋은데 이것을 우리말로 할 수는 없느냐 이거예요. 한글 사랑하는데, 여기서 우리말 사랑하는 거 같이

배우는데 여기서 꼭 Do-Dream이라고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 학생교육문화원장 김용환

앞으로 고려해보겠습니다.

● 김부웅 위원

아니 앞으로가 아니라 바꾸자는 취지로 대답 좀 해보세요.

● 김병우 위원

어법에 맞는지는 검토 안해 보셨죠?

● 김부웅 위원

어법에도 안 맞아 이게.

어떻습니까, 그거 한번 고쳐보세요.

● 학생교육문화원장 김용환

구태여 말을 하자면 뜻은 두드린다, 꿈을 두드린다 그 의미는 그렇습니다.

● 김부웅 위원

글쎄 그것을 우리말로 연구를 해보세요. 좋은 말이 있을 겁니다. 나는 처음에 두드린다고 그래서 Do-Dream이 아니라 정말 등 두드리고 이마 두드리고 그래서 어떤 효를 만드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용을 읽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수련원입니다.

제가 몇 번을 거기 이용해보도 거기 대천에 있는, 수련원에 있는 직원들 참 수고하십니다. 친절도 하시고 갔다 올 때마다 아주 만족합니다.

거기도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6만

3,056명, 굉장한 인원이 이용하던군 그래요.

그런데 하나 주문사항입니다.

성수기에는 할 수 없다고 치더라도 비수기에 퇴직한 우리 공무원들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거기 전화를 하면 안 받는대요, 퇴직한 사람들, 현직 교육가족만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삼락회 하는 분들이 우리도 쓰게 해줘요 하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가능할까요?

● 학생종합수련원장 황용수

그 규정을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부웅 위원

그래서 퇴직하신 교육공무원들도 사실 우리 선배니까 어른을 모신다는 입장에서 그 분들에게도 개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한번 연구 좀 해주세요.

외국어교육원, 1월 29일날 행사를 잘 치러주셨는데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가 교육위원님들이 강원도 외국어교육원을 방문했었어요. 그런데 기능직까지 전직원이 원장부터 전직원이 나와서 환영을 하더니, 6시 반이 넘었습니다. 우리가 나갈 때도 전체가 다 나와서 환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여기는 친절한 게 충청북도하고 비교도 안될 정도라고 전부 이구동성으로 칭찬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걱정을 됐지. 충북 교육원에 갔다

[직속기관주요업무계획보고]

가 그렇게 안되면 어떻하나 했더니 전혀
저는 필요 없는 걱정이었어요. 더 아주
환영을 하더라구요. 거기도 전직원이 다
나와서 환영을 하는데 정말 아주 잘 했다
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칭찬 좀 가서 해 주세요.

● 학생외국어교육원장 변상권

감사합니다.

● 김부웅 위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주문을 하
겠습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이런 주문인데 이
간판이 외국어교육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전부가 영어교육이에요.
앞으로 영어교육원으로 바꿉시다. 외국어
교육원으로 해 놓고서 영어 하나만 하지
말고. 아니면은 우리 주변에 지금 동남아
나 유럽 쪽에서 온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을 이용해서 정말 다국적 언어가 거
기서 교육이 한 강좌 되면은 그 외국어교
육원이란 말이 되는데 지금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 학생외국어교육원장 변상권

예, 정책과하고 상의해서 논의해서 결
정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해보겠습니다.

● 김부웅 위원

그리고 연중에 교사들을 위한 연수가
보니까 40명씩 6개교에 240명밖에 없어
요. 저는 생각에 외국어교육원이 학생들

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학생을
교육하는 기능보다는 오히려 교사들을 중
심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서 거기서 얻은
교육력이 학습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앞으로 그 기능을요 교사연수를 주로 많
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원장님 어떠세요.

● 학생외국어교육원장 변상권

타이틀이 학생외국어교육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건립 초부터 그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논의가 있었고, 명칭을 어떻게 하
느냐 하는 것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은 저희 외국어교육
원에서 영어 주축으로 하고 있고, 교사는
단재연수원에서 심화학습으로다가 영어선
생님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고, 이렇게 구
상을 전 교육감님께서 하신 걸로 제가 알
고 있습니다.

● 김부웅 위원

전에 그렇게 했더라도 지금 초등학교는
전체가 영어를 합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영어연수를 꼭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재
에서도 물론 영어연수를 하고 또 과학연
구원에서도 다 하고 하겠습니까만은 외국
어교육원에서는 학생들 잠깐 하지 않더라
도요 초등학교 교사들을 전체 다 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교육이 퍼져나가야지 자꾸 외국 원어민 강사 데려다가 이상한 사람 갖다가 자꾸 해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 선생님한테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전체적인 방향이 선생님들 교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광정수

김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수웅 위원 거수하여 발언 신청)

예, 서수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수웅 위원

직접 간접으로 충북교육에 이바지하시는 기관장님들, 전년도 성과를 접하면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저는 앞에서 질의하신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게 많아서 아주 편안한 거, 아주 작은 것, 정말 이런 게 질문이 되나 하는 것 한번, 잘못하면 무식의 소치가 될 것 같아 걱정은 되는데 만일에 잘못된 거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장님, 내 친구니까 더더구나 잘 가르쳐 줄 걸로 믿고, 23쪽 한번 보세요.

3D 입체 영상관 구축에 보면 내용 끝부분에 재생플레이어 구입치 그랬는데 구입

치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재생 플레이어 구입치, 구입치라는 단어. 내용 끝 단어. 그게 맞는 건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단어가.....

● 교육과학연구원장 박상필

재생플레이어 구입치, 맞는 겁니다. 용어 자체가 그런 겁니다.

● 서수웅 위원

재생플레이어 구입치라는 게 재생플레이어를 구입해서 설치한다는 비치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 교육과학연구원장 박상필

구입 설치.

● 서수웅 위원

아,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여러 사람한테 나가는 자료니까 만일에 잘못된 거면 고쳐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작은 거지만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두드림이라는 게 뭔가 있어 보이는 뜻에서 자꾸 우리가 위원 되 고서부터 자꾸 이런 용어를 찾아내게 되는데 찾아내느라 고생 무지하고요 그거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게 왜 요새 외국인들이 콩글리쉬 콩글리쉬 그런다는데 혹시 외국인들한테 딱 내밀어서 이해가 가는 어법이라면 괜찮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좀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앞으로 걱정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직속기관주요업무계획보고]

들더라구요.

물론 좋아요, 딱 보면 아 이게 뭔지 이해도 되고 읽어보면, 좋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자꾸 걱정이 되는 게 공부할 게 많아져서 해마다 새로운 용어가 나오니까.

자,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교사 때부터 단재연수원에 강의를 하러 다니면서 딱 가면 거기 눈에 띄는 게 있어요. 3S, 기가 막히잖아요 그게. 발탁 일어나서 웃으면서 신속하게 처리한다. 이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느껴요. 아, 학교도 우리 저렇게 근무해야 되겠다 이걸 느끼게 되는데 우리 각 직속기관들이 가보면 열심히 하고, 아까 김부웅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숫자를 다 적어보면서 감탄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혹시 정말로 3S를 느끼면서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을까 직원들이, 그것은 우리 직속기관장님들의 어떤 배려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걸 읽어보다가 문화원에는 보니까 말이예요 행정서비스헌장이 있더라구요. 다른 기관도 다 있을 걸로 보는데 그 1항에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고객을 밝은 미소와 상냥한 말투로 정중하게 맞이하겠습니다하는 첫 번째 항입니다. 이 밝은 미소가 바로 스마일인데 웃으면서, 단재하고 똑같잖아요. 상냥한 말씨. 아, 이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성과를 올리고 교육에 이바지하고 고생들 하시는데 기왕 할 일 콧노래 부르면서 하면 행복할텐데, 밝은 미소는 웃는 얼굴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웃는 얼굴이 행복한 얼굴이라고 다 생각하는데 이런 분위기로 행정서비스 자세로 밝은 미소를 가지고, 상냥한 말하면서 화낼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오드리헵번이 로마의 휴일에서 유언하는 중에 한마디 나와요. 매혹적 입술을 가지려면 상냥하게 말하라, 친절하게 말하라 그렇더라구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 두 기관에는 의도적으로 명문화해서 하듯이 우리 충청북도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학교까지 포함해서 늘 밝은 미소와 상냥한 말씨로, 단재의 말을 빌린다면 3S로 이렇게 근무 자세를 복스럽게 바꿔가는 데도 한번 이 자리에서 결의를 마음 속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걱정수

서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상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일 위원

이상일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요 근래 고민거리가 있어서 여기 여러 직속기관장님들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육과학연구원에서도 진로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단체연수원에도 보니까 학부모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로지도에 국가적인 관심사이기도 하지만 얼마전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교장선생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전문계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네 학교도 빨리 인문계고등학교로 바꿔줘야 되는데 안 바꿔준다 그래서 인문계고등학교로 다 바꾸면 어떡하겠습니까. 청주상고가 대성고로 바뀐지 않느냐. 제천농고가 일부를 바꿨다가 아주 인문계고등학교로 바뀐지 않느냐. 바꿨는데 우리 거는 왜 안 되느냐. 그래서 대한민국에 전문계고등학교가 필요합니다. 안 필요합니다. 다 인문계고등학교 보내서 다 대학 보내 가지고 그 학력인프라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위원님 모르는 말씀 마십시오. 애들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장의 사명이 됩니까. 학부모들이 잘못 가는 길로 가면 그렇지 않다고 잡아주는 게 지도교육 아니겠습니까. 결론 없는 대화를 하다가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피 유럽에 가면 중

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진로지도 학교에서 해 주죠.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난대로 애는 전문계고로 갈 건지 대학진학을 결정해 주고 학부모나 학생이 순종을 한다고. 또 거기 가서 전문계고등학교나 전문계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기능직 하나 뽑는데도 심지어는 대학원 졸업생까지 원서를 내서 연봉 뭐 천오륙백 받는 거 가지고 20 대 1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탁의 말씀인데 그 분들이 받아들이든 말든 간에 진로지도할 때 정말 전문계고의 적성에 맞는 애들은 그쪽으로 보내도록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는 후배는 굉장히 잘 살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요리를 배우겠다고 해서 조금 싸우더니 요리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애가 프랑스 유학을 갔어요. 그런데 갔다 와 가지고 좋은 레스토랑 하나 꾸미기 위해서 지금 어느 호텔의 주방 보조로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사례로 해서 전문계고등학교 진로지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저기 교육과학연구원장님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실업계 대 인문계가 한 때는 6 대 4까지 갔죠? 그런데 지금 5 대 5 정도로 된 것 같은데, 앞으로 그 진로지도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학연구원장 박상필**

교육과학연구원장 박상필입니다.

지금 진로지도는 교육과학 지도는 금년까지는 직접 찾아다니면서 학교를 순회하면서 1년에 한 40개교 정도를 저희들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2시간씩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가, 우리 진로지도부에 연구사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을 직접적인 진로지도를 하기에는 우리가 저기고 학교에 맡기고, 우리는 간접적인 그래서 권역별로 8회를 했는데 권역별로 우리 11개 시·군을 나눠가지고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간접적인 저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진로교육을 받은 그 분들이 직접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직접 학생들에게 투입하는 그런 간접적인 그런 방법으로 올해 금년부터 대체를 한 것입니다.

● **이상일 위원**

하여튼 우리가 그런 쪽으로 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 올렸습니다.

이게 무슨 금방 원장님들한테 정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같이 우리가 미래교육을 위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중앙도서관하고 학생문화원장님한테도 같은 말씀을, 이제 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

가 독서교육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앙도서관에서도 평생학습강좌로 해 가지고 굉장히 여러 분야, 뭐 29개 과정을 설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사람들한테 취미가 뭐냐고 물어보면 대개 쓸 게 마땅치 않으면 독서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독서가 취미인데 과연 저를 포함해서 1년에 몇 권의 책을 읽는지.

그러면 이렇게 복잡하고 강사 구하기도 어려운데 다 복잡한 거 하지 마시고 몇 개 과목이라도 독서교육을 전적으로 했으면.

아까 김부용 위원님도 선생님들에게도 독서지도에 관한 것을 했으면 어떠냐 하는데, 그래 이런 비유를 합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움직이는 침대차, 일본의 지하철은 움직이는 이동도서관.

88올림픽하고 2002년 월드컵 끝난 후에 한국이 곧 일본을 추월할 것 같아서 난리를 친 일이 있었답니다. 일본에서 걱정이 돼 가지고 노무라연구소하고 몇 군데서 한국을 한 달 동안 다니면서 살살이 여러 방면에서 조사를 해봤답니다. 거기서 내린 내부 결론이 한국은 일본을 따라올 수 없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한국 사람들은 책을 안 읽는다는 결론이 났답니다.

그러면 왜 독서를 그렇게 열심히 얘기를 하는데도 요새 여자들이 앉으면 연속

극이나 보지 애들 공부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 복잡하게 민화니 뭐니 많은 거 해서 하는 것보다는 도서관은 주로 도서업무만, 독서지도만, 그것만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관장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도서관장 백남권

중앙도서관장 백남권입니다.

현실성 있고 지식정보 사회에 가장 알맞은 그런 말씀이라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중앙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물론 그 동안에 성인 중심, 학생 중심 안배를 해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인 중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학생들은 학교에 가게 되면 일과 시간 내에 성인들이, 도서관을 또 계속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취미 분야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금년도에는 독서치료사 양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독서논술, 주로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는 과정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미 교양 쪽은 서서히 정리를 해가면서 그런 쪽으로 확대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 이상일 위원

예, 그런 쪽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상입니다.

● 의장 곽정수

이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을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산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전통과 문화를 계승하는 게 이제 교육의 기능인데 지금 걱정되는 것은 계승해 줄 후손이 없다 하는 것이 걱정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출산율이 1.2명이 되다보니까 학교도 학급도 학생수도 이렇게 줄다보니까 이제 교원수도, 그러다보면 우리 승진해야 할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도 이제 3학급 이하는 또 없어야 되는 등등의 이런 악순환이 되고, 또 병원도 소아과가 장사가 안되고 산부인과가 안되고 그러다보니까 또 그런 쪽도 문제가 되고, 그러다보니까 인구증가율의 둔화가 사실은 우리 인적자원이 우리 미래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가장 중요한 자원 중의 하나가 인적자원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우리 교육에서는 얼마나 진행이 되었느냐를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안으로 아마 다문화가정이 상당히 많이 인구증가에 기여를 하는 것 같은데, 또 외국인이 한국에 사

는 인구수가 100만이 넘었다고 그러고, 또 다문화가정이 14만 가족이고 매년 1만 가족 정도가 결혼에 의해서 다문화가정으로 형성이 되는데 이러한 추세로 간다라고 그러면 사실은 우리 미래도 그들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 공감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지금 우리 다문화가정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풍족하고 훌륭한 집안으로 맺어진 부부보다는 좀 소외되고 좀 뭐라고 그럴까 재산 정도도 하여튼 여러 가지로 소외된 부분이 다문화가정인데 우리 교육에서도 그 다문화가정을 이해하고 진정으로 돕는 그런 쪽으로 우리 프로그램이 지원되고 또 시행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드립니다.

지금 이번 우리 직속기관장님들 업무보고를 하면서, 제가 그런 다문화가정 쪽을 한번 관심있게 봤더니 학생수련원 쪽에서 다문화가정 캠프가 있었고, 또 도서관 측에서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코너가 있었고, 그래서 그 다문화가정 코너를 보면서 거기 이동도서관에 우리 다문화가정을 위한 코너랑 합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이 들었고, 또 점자도서관도 있다라고 그래서 그 점자도서관도 이동도서관 할 때 같이 프로그램을 합치면 더 멋진 배려가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한번 이것은 우

리 모두가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후손이 없다라고 하는 선조가 과연 존재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 정책서부터 다같이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기 변상권 원장님, CEO라는 말을 흔히 쓰는데 정확한 말이 뭐예요.

● 학생외국어교육원장 변상권

갑자기 들으니가 생각이 잘 안 나네요.

Chief Executive Officer입니다.

● 의장곽정수

Chief Executive Officer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 학생외국어교육원장 변상권

주요한 직에 있는 행정 관리라는 뜻입니다.

● 의장곽정수

그러면 지금 우리 교장선생님을 CEO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거 맞는 거예요?

● 학생외국어교육원장 변상권

그렇게 불러주는 게 좋죠, 운영하는 그런 저기니까요.

● 의장곽정수

그럼 우리 원장님들은 어때요? 당연히 CEO죠?

● 학생외국어교육원장 변상권

예, 맞습니다.

● 의장곽정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행정하

고 정책하고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런
니다.

지금 우리 본청이고 직속기관이고 죽
이렇게 보면 이 양반이 행정을 하는 사람
이나, 정책을 하는 사람이냐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요. 주어진 일만 그냥 또박또
박 잘 하면 그것은 행정을 하는 사람이
고, 그러니까 사무만 보는 사람이고 미래
를 향한 준비를 하고 계도를 하고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이
사실은 필요한데 우리 이렇게 보면 그런
분보다는 그냥 자리나 지키고 또 그 혼나
지 않게 그냥 적절히 하고 또 뭔가 새로
운 것을 관철하려고 애를 쓰고 개발하고
그러는 노력이 보일 때 우리 충북교육이
업되고 그런 면이 있다고 저는 감히 주장
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눈치만 보고 일을 했을 때
이거 꼭 우리가 해야 돼요 하고 일을 떠
넘긴다거나 또는 그 일을 진정이 아닌 그
냥 뭐라고 그럴까 그냥 일회성으로 이러
게 지나가고 마는 그런 행정이 사실 도처
에 눈에 띄어서 과연 예산을 들여서 그런
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
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과연 우리
현재 CEO라고 하는 분들이 자기 역량을
분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지금 직속기관장님한테 드리는 말
씀이 아니고 우리 본청이나 우리 교육 관

련자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보셨을 때 가
끔 우리들끼리 얘기할 때 나오는 얘기 중
에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
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행복해
서 웃느냐 웃어서 행복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행복하면 웃지만 웃으면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우리 일도 열심히 하면 그 성과가 기쁨
과 연결이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면
서, 오늘 보고에 관한 질의 응답을 마치
겠습니다.

오늘 보고 및 질의와 답변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동료
위원님,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직
속기관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요업무 보고를 통하여 보여주신
기관장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욕적인
실천의지로 올 한 해 업무를 추진하시어
훌륭한 교육적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직속기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직속기관의 주요업무 계획 보
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시 03분 회의종료)

[직속기관주요업무계획보고]

0 출석위원 : 7명

의장 곽정수, 부의장 김부웅,
위원 김병우, 성영용, 서수용, 이상일, 정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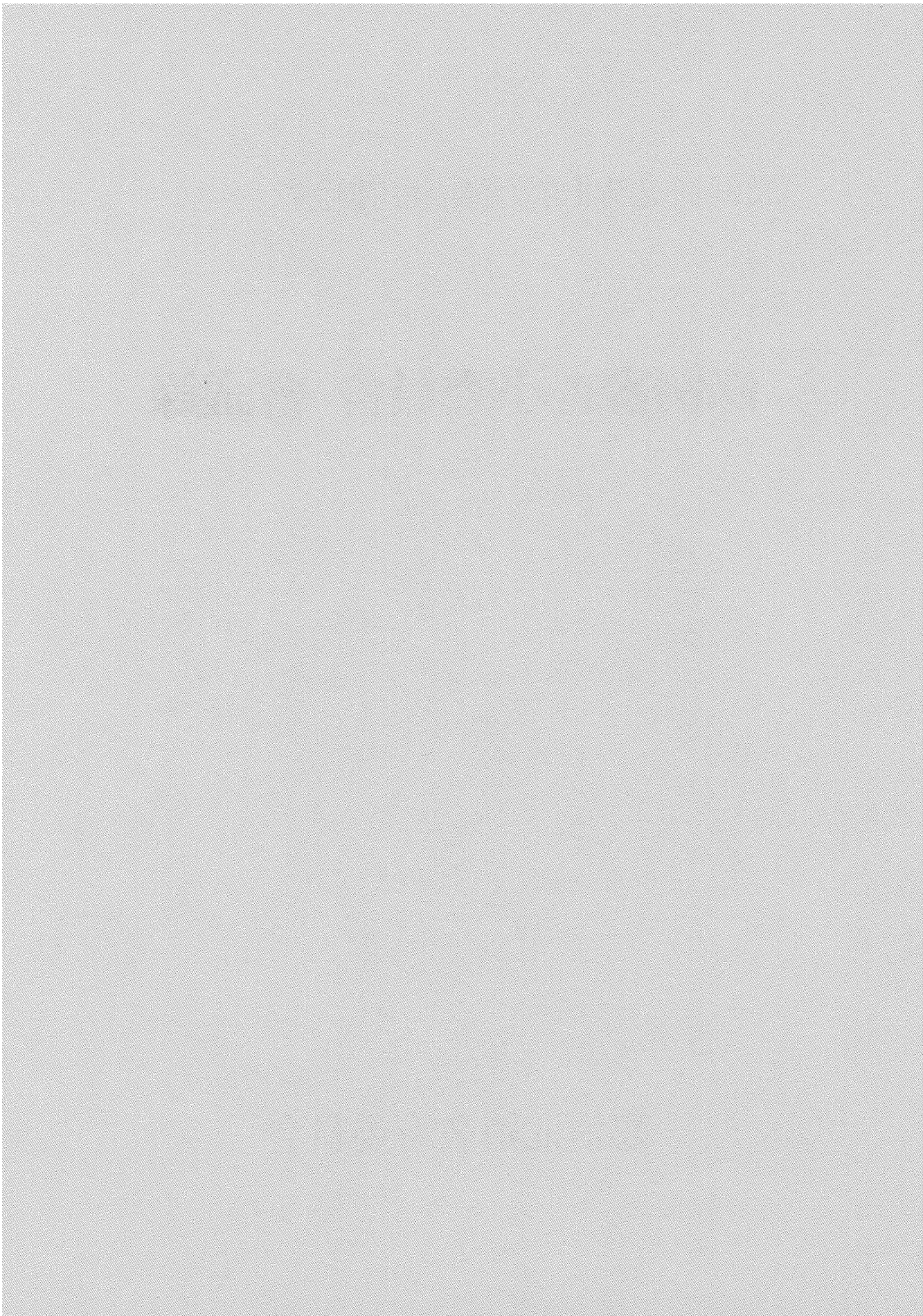
0 출석공무원 : 6명

교육과학연구원장 박상필, 단재교육연수원장 하재성,
중앙도서관장 백남권, 학생교육문화원장 김용환,
학생종합수련원장 황용수, 학생외국어교육원장 변상권.

第225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條例審查小委員會 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I. 제22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247

II. 부 록

1.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261

條例審查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9년 2월 9일 (월요일) 11시 16분

議事日程 (제225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4.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審查된 案件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4.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16분 개의)

●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해 적용되는 종전 같은 법률 제19조로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제가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 임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 **성영용 위원**

교육위원 성영용입니다.

금번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부웅 교육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일**

김부웅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김부웅 위원님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신 후에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부웅**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잘 심의를 해서 본청

을 도와드리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

(11시 18분)

● **위원장 김부웅**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방금 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우 위원**

교육위원 김병우입니다.

이번 조례심사소위원회 간사로 서수웅 교육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부웅**

서수웅 위원님이 간사로 추천되어서 본 소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서수웅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수웅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 **간사 서수웅**

이번 개정조례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간사로 뽑아주신 동료 위원님들의 뜻을 받고 위원장님의 뜻을 함께 받들어서 본 조례가 원만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간사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건

(11시 20분)

● 위원장 김부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소위원회 의사일정안은 본 위원장이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활동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 하루로 해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본 위원장이 제의한 바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별첨 1)

(끝에 실음)

다음은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

때문에, 다음은 오늘 심사 및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질의 및 답변으로 진행하되 질의 및 답변은 신청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관계관계서는 회의기록을 위하여 답변하시기 전에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21분)

● 위원장 김부웅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수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간사 서수웅

서수웅 교육위원입니다.

본 정원감축에 관한 것은 다시 재고할 여지가 없는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원안에 찬성하는 바입니다마는 정원이 152명 감원된다는 것은 총 정원에서 감원된다는 걸로는 이해가 됐는데, 혹시 직급·직위별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고려하

는 점도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152명이 줄어들게 되면, 실질적으로 직급간 쉽게 말하면 9급부터 또 3급까지 또 기능직 같으면 6급부터 10등급까지의 직위간 직급간에 밸런스를 맞춰서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교육감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볼 때에는 가급적이면 기존에 있는 분들을 조기에 이렇게 정원을 감축을 함으로써 불이익이 없도록, 자연 증가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직급간 균형을 맞추어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 간사 서수웅

그래서 제가 집에서 읽어보면서도 해소 시까지 정원을 따로 둘 수 있도록 부칙에 정한다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정년퇴임이나 명퇴하는 사람으로 해서 감소가 되어서 152명이 줄을 때까지 현원을 유지한다는 얘기로 제가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신규임용이 굉장히 힘들겠네요. 지금까지 벌써 시험을 봐서 뽑아놓은 직원도 있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현재는 대기중인 사람은 없고 현재 각급 학교의 40여 명 정도가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는 2009년도에 30명 정도가 자연감소가 되고 2010년도에 97명 정도가 퇴직 내지 자연감소가 되면 2010년도까지만 고생을 하면 수급에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간사 서수웅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웅

서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정무 위원

정무 교육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하면 2009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이 2,879명으로 전년보다 152명이 또 보정정원은 2,965명으로 전년보다 156명이 감축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참 걱정스러운 것이 금년 2009년부터 지방공무원의 정년을 격년제로 연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른 송진요인의 감소와 금번 정원감축에 따른 직급별 과원으로 지방공무원의 승진적체가 예상

되는데, 또 신규임용을 제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승진적체에 대한 예상과 신규임용 제한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나갈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우선 승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다소의 지연은 예상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자연 증가인원을 가급적이면 감축하는 걸로 보면 일반직 정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승진이 많이 늦지는 않을 걸로 예상되고, 기능직들은 다소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승진이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신규임용문제인데, 신규임용은 지금 당장 국가의 정책에 따르기 위해서 한 개 년도의 신규자들을 뽑지 않을 경우에 나중에 승진할 때나 퇴직할 때 무렵에는 상당히 한 개 년도가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먼 미래로 보면 바람직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현재 국가 경제가 어렵고 하다보니까 조직을 축소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따르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부득이 2009년도에는 모집을 할 계획이 없고요.

제 생각으로 본다면 2010년도 상반기나 하반기 정도에는 모집을 해서 2010년도 하반기 내지 2011년도 초에는 신규자들이 임용을 받을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왜 그러나 하면 저희들이 모집을 해 놓고 보통 교육을 시키고 이러한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모집을 하면 결국에 우리 충북 같은 경우는 1년 정도의 선후배관계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다소 적합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신규채용자들의 기간을 당겨서 공백이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무 위원

본 위원이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정년퇴임을 해서 나가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 인원이 모자랄 때 정원감축을 위해서 아직 정년이 남은 사람들을 내볼 때는 신규임용을 억제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년이 2개 년도에 걸쳐 가지고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이 60세로 늘어남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근무기간이 길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원감축으로 인해서 그분들한

데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고 법적으로 보장이 된 것 같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우리가 수요조사를 한 것이고.

저희들이 왜 152명중에서 기능직들이 다소의 승진이라든가 신규채용의 불이익을 당하느냐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정규직이든 기능직이든 현재 있는 사람들을 있는 자리를 줄이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자연감소 부분만을 이렇게 감안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기능직 분들이 퇴직자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현재 있는 분들의 불평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다소 직급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큰 불이익은 없을 겁니다. 불이익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 정무 위원

그런데 서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직급으로 몰려서 감축을 시키면 나중에 승진하는데 더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직급별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저희들이 그거는 균등하게 비례에 현재 우리가 예를 들면 일반직 같으면 9급부터 3급까지 비율이 있습니다. 교육부의 권장 비율이 있고.

● 정무 위원

5%니까 지금 5%잡아요. 5%면 직급별로

4급도 5%, 5급도 5%, 6급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전국의 다른 시·도의 평균수준도 감안하고 교육부에서 또 균등하게 유지하라는 권장선이 있습니다. 그 선도 유지를 하고, 또 기능직도 기능직 6급부터 10급까지를 직급별로 불균형이 안생기고 승진에 지장이 없도록 균형되게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 정무 위원

잘 알았습니다.

운영의 묘를 잘 살리셔서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웅

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성영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영용 위원

교육위원 성영용입니다.

다른 얘기는 없고 우리 직급별 정원책정의 자율권이랄까 이것이 지금 전혀 없는데, 이 부분이 교육자치체를 위해서 교육감한테 이양이 되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전망은 없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자율화추세에 따라서 많은 중앙업무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장한테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위임을 해주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거하고 같은 맥락을 볼 때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특히 교육행정 일반직에 대해서는 교육감한테 권한을 줘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권한위임에 관한 사항이거나 내지는 법령상으로 고유사무로 넘겨주는 이양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 단독으로 이렇게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지난번 교육감님들 협의회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 정식으로 일반직 정원과 기능직 정원에 대해서는 자율책정권을 교육감들한테 일임을 해달라 이렇게 건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아마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 **성영용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웅**

성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병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병우 위원**

교육위원 김병우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앞서 위원님들께서 짚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번 정원조정은 중앙정부하고 중앙부처의 판단으로 효율화에 취지를 둔 그런 조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정원의 비효율적인 부분이 특히 지방공무원 정원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고 중앙정부에서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중앙정부 판단하기 전에 혹시 정말로 그런 부분을 느꼈는지, 저희가 옆에서 보기에 는 일거리 는 많고 일손은 딸린다 그래서 정말로 업무가 과중되는 부분을 많이 봤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일단은 일손을 남는 걸로 생각을 해서인지 다이어트를 해야겠다고 정원을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정말 집행청에서는 과연 비효율적인 부분이 어디 있었던 걸로 보시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행정이 날로 복잡화하고 또 세분화되고 또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에 공무원 수가 줄게 되면 그나마만큼 교육수요자들이라든지 선생님들이라든가 또 시민들, 도민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현행 유지 내지 증원의 필요성이 더 절실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앙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효율적인 판단을 나름대로 해서 한 5%정도의 감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방침이 시달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을 볼 때 중앙에서는 보는 것은 아마 주로 학생인구가 지금 많이 줄어들고 또 학교들이 대도시는 늘지만 농촌 학교는 많이 줄어들고 또 일반행정 수요가 과거에 다소 많이 있었던 그런 부서들도 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한 5%정도를 감원을 하는 걸로 방침이 시달되었습디만, 저희들도 보면 중앙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직접 교육현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수만 준다고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나 직원들이 정비례로 줄 수는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의 학생수가 100명이던 학교에 10명이 있다 해서 그 학교가 존속하는 한 일반직은 필요하고 선생님들은 존재해야 되는데, 지금 정원을 책정하는 기준이 학급수, 학교수나 교육기관의 부서, 또 지역교육청의 부서 이런 걸 감

안하다 보니까 아마 줄여야된다 이렇게 본 것이 더 효율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만, 김병우 위원님 염려하시듯이 저희들은 사실은 늘었으면 그런 기대감을 해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조례가 저희들이 3,031명에서 152명이 줄지만,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교육부에서 각 시·도 간 일반직이나 기능직을 정원을 재 책정 합니다. 그러면 4월 1일 기준에 우리 농촌학교나 산촌학교들이 많은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아마 정원이 증원되는 그런 변수보다는 줄어드는 변수로 많이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됩니다.

아울러 지금 교육부 쪽에서는 다소 추진하다가 잠잠합니다만 지역교육청의 통폐합문제도 지금 중앙에서 아직 연구 중에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로 볼 때에 우리 교육청이 실제로는 지금 인원은 많이 필요한데 정원은 다소 더 줄어들지 않겠나 그런 염려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 김병우 위원

제 우려도 시스템을 정비하고 구조 자체를 조정하지 않고 인력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버리면 약간 효율화에 초의 취지하고는 엉뚱한 결과가 낳지 않겠는가 이런 것이 걱정스러운 건데요.

지금 이 방안도 전체 인력을 감축해서

예산을 인건비를 줄이자 이런 쪽에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교육현장의 어떤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한 것이 아니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찍이는 이런 방향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줄인 인원을 자연감소에 맡겨서 해소하겠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결국은 일손이 줄어지는 부분은 경력이 많은 그야말로 퇴임에 가까운 쪽에 일거리가 조정되지 않은 채로 인력만 줄어드는 그런 어떤 결과를 낳지 않느냐,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은 업무의 효율화하고는 다른 엉뚱한 결과를 낳지 않느냐 이런 걱정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줄어드는 정원 내에서 효율적인 어떤 배분 같은 것을 당연히 생각하시겠지만 자연감소분에 따른 어떤 인력 배치만으로 하기에는 걱정이 남는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이 있으신가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정무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염려하셨고 김병우 위원님께서도 염려를 하셨는데, 사실상 우리가 가장 민감한 것이 공무원들한테는 자기 일자리입니다. 직장에서 도태됐을 때의 그 괴로움이란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정부가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일자리 창출이니 뭐니 상당히 경제활성화를 하면서 공무원 정원은 줄여라 이렇게 하게 되면 언뜻 보면 조금 이율배반적인 것도 같고 앞뒤가 안맞는 것도 같고, 또 지금 김병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정원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조조정을 먼저하고 그 구조조정에 따라서 없어지는 부서, 또 필요한 부서 전부 감안해서 인원을 늘리고 줄이고를 판단해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다소 성급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발언을 하셨는데, 사실 정무 위원님이나 김병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지금 일자리를 어떤 외부조건에 의해서 그만 두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이것이 저희들 교육감님의 방침이고, 또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본인이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는 나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연 감소부분을 택하게 됐는데, 이 자연 감소부분만 택하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특정한 지역이라든가 특정한 학교 아니면 특정한 기관에 특정한 직종이 부족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칙적으로 조정할 때에 최대한 저희들이

한번 고려를 하고, 또 가급적이면 그 부분이 감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주어서 사업예산으로 인력을 활용을 해서 교육서비스의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직진단부분은 저희들이 2007년도 하반기에 조직진단을 했습니다만, 그때는 다소 현재 인력가지고도 부족한 걸로 이렇게 진단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또 정부방침은 따라줘야 되겠고 부득이 일부 줄이게 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응

김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언 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2명이라는 숫자는 사실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업무가 자꾸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서 더 사람이 증원이 되어야 할 이런 입장에서 감원시킨다는 건 참으로

위험한데, 현 수준을 유지하고 서비스의 효율화를 유지하면서 152명을 줄여놓고서 그 업무를 어떻게 유지할까라는 걱정이 앞서는데, 아무래도 남아있는 사람들의 업무가 가중되겠죠.

그러면 본청에서는 남아있는 분들의 가중되는 업무에 대해서도 앞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텐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는 방향은 어떠한 방법이든지 학교단위에는 지원인력이 최소한 한 사람씩은 고정적으로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소규모학교 정도에는 교장선생님들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직들을 고정배치를 하다보면, 아마 중간단위 내지 큰 학교 쪽에 또 교육청 내지는 직속기관 쪽에 정원이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장님 염려하시듯이 지금 우리 도교육청 내지는 지역교육청 단위로 행정기관이 큰 기관일수록 업무량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업무를 가급적이면 밑으로 떠맡기지 않고 물론 고유업무는 자율권한을 이행합니다만, 컴퓨터가 발달되고 인터넷이 발달되다 보니까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많은 업무들을 끌어안다 보니까 도교육청 내지 지역교육

청 쪽에는 업무가 과중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국책사업인 영어교육활성화 때문에 남부 중부의 영어체험센터가 만들어지고 점차 도서관이 또 중앙도서관에 만들어지고, 이렇게 자꾸 부서에 인력의 증가요인은 생기고 또 정원은 152명이 줄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또 인원은 어디선가 줄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그래도 학교 중에서 중간정도 이상 되는 학교에서 인력을 다소 빼고 또 직속기관이나 이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지원부서 쪽에서 인력을 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관계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검토작업이 끝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웅

국장님 답변 중에 아주 상당히 고뇌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어서 고맙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부분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

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소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조례안을 심의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청 관계관계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제225회-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김부웅, 간사 서수웅,

위 원 김병우, 성영웅, 이상일, 정무.

○출석공무원 : 2명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과장 홍준기.

※ 부 록

- ▶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별첨 1)

제22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조례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함.

2009. 2. .

위 원 장

김 부 웅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appearing to read '김부웅', is written over the printed name '김 부 웅'.

(별첨 1)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제22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09. 2. 9. (월) 본회의 종료후	<p style="text-align: center;">[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위원장 선출의 건2. 간사 선출의 건3. 의사일정 결정의 건4.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